



동방경제포럼의뉴스

동방경제포럼-2017에서 대한민국은 '극동의 거리' 축제에 참가할 것이다. 이 국가의 전시관에서는 2018년도에 평창에서 개최될 동계 올림픽이 소개될 것이다. (타스)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투자자들은 루스키 섬에서 국제협력센터 건설에 참가할 수 있다. 해당한 협정은 동방경제포럼-2017에서 체결할 예정이다. (타스)

동방경제포럼에서 하바로프스크 지방은 600억 루블 이상의 금액어치 협정들을 조인할 것이다. 하바로프스크를 우회하는 차도 부설을 용자하는 가장 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액은 430억루블이 될 것이다. (리아 '노보스티')

동방경제포럼-2017에서 야쿠티아는 총 금액이 70억 루블을 넘는 21개의 협정들을 조인할 예정이다. 이들 중에는 150석짜리 '小 과학 아카데미' 건설에 용자할 데 대한 '로스네프티 석유회사'개방식주식회사와의 추가적 협정이 있다. (타스)

동방경제포럼-2017에서 연해주는 '나데즈딘스카야'선도개발구역을 소개할 것이다. 행사는 생선가공단지 구축, 생선제품의 생산, 가열장치와 배전장치 생산 등 부문에서 신규 프로젝트들을 실행할 투자자들과의 협정 조인식을 포함할 것이다. (타스)

동방경제포럼에서 주택담보대출대행사는 블라디보스토크 구 개발컨셉트를 소개할 것이다. 이는 블라디보스토크 대도시권 마스터플랜 컨셉트, 블라디보스토크 공공부분

개량 프로젝트 그리고 루스키 섬에 있는 노비크만 종합적 발전 전략 등을 포함할 것이다. ('이즈베스티야'지)

극동연방대학교는 동방경제포럼 청년의 날 가장 적극적인 참가자들로 극동에서 실현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예비인재를 창출할 것을 제안한다. 청년의 날에는 400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젊은 기업인들과 비영리 단체들의 관리자들이 참가할 것이다. (타스)

극동 뉴스

'쿠릴 열도' 선도개발구역을 위한 '전망 발전 방안'이 개발된 것이다. '피난소브 이 오르가니자치온니 컨설팅'(재정 및 관리 컨설팅)사는 극동개발공사가 개최한 콩쿠르 우승자가 되었다. 이 회사는 70년간 전망으로 선도개발구역 발달에 있어 주요 방향을 개발하게 된다. ('REGNUM' 통신사)

2018년 가을에 와서 '하바로프스크' 선도개발구역의 잠재적 레지던트회사는 타이어 재생형 공장을 가동할 것이다. '빅토리아'사는 '라키토노예' 지면에서 연간 생산량이 1.09만개의 타이어가 되는 생산공장을 건설할 것이다. ('인테르팍스')

연해주 '나데즈딘스카야' 선도개발구역 레지던트 회사는 각종 구색 가정용 화학 제품 80톤 이상 생산했다. '보스토크-폴리코르' 유한책임회사의 관리부는 이 회사가 실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효율성이 세금혜택 덕택에 30% 이상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Primorsky.ru)

참고정보:

동방경제포럼-2017의주최자인'로스콩그레스' 재단은회의, 전시회등행사의최대주최단체이다.

'로스콩그레스' 재단은2007년도에회의, 전시회등사회행사를개최하며수행함으로써 러시아이미지를강화하고경제적잠재력을발전하는데기여할목적으로설립된것이다. 재단은이행사들의내용부분을형성시키며, 단체들과회사들에전문적컨설팅및정보지원을제공하며러시아및전세계경제적일정의제문제를전면적으로연구하며분석하며조명하고있다.

오늘재단의연간일정은몬테비데오부터블라디보스토크까지개최되고있는행사들을포함함으로써한마당에서세계적인비즈니스리더들, 전문가들, 언론인들, 정권대표자들을모으며새로운구상과프로젝트를논의하며추진하기위해서최선의조건을마련하며사회적기업과자선프로젝트를형성시키는데기여할수있게해주는것이다.